진리 평화 창조

발행인 최 완 복
편집인 안 병 만
주간 신 석 일 교
발행소 한국외국어대학
외대신문사
전화 ☎ 7128 (직통)
우편번호 13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동270-1
인쇄인 조선일보사 방 주 영

외대학보

(1958. 3. 27. 제 3 종우편물인가)
(등록번호 제다 253호)

제289호
<순간>
1979년
10월 1일 발행
등록 1960년 7월 1일
창간 1955년 4월 11일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이문풍경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언제나 사상(事象)의 무료한 근저(根底)가 되어왔다.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 참여의 미덕도 그런 바탕에서 제자리를 잡아야 할 것같다.

<제 3 회 외대명인전>

일부학과 명칭 변경

외국어, 교육 사회학부 12개학과
문교부 대학 학생 정원령에맞추어

○…법정·상경학부를 제외한 본대학 외국어학부와 교육사회학부에 설치되어…○
○…있는 각 학과를 일부학과의 기존 호칭이 지난 9월26일자로 개칭되어…○
○…문교부로 대학 학생정원령상의 학과명칭에 따라 통일호칭되게 되었다. …○
○…변경된 각 학과와 호칭은 금후 학내외를 막론하고 통일사용되게 된다. …○

그동안 본대학 외국어학부를 비롯한 일부 학과에서는 학과호칭에 있어서 일어밖을 불변했던 반면 교육학과는 법률사용을 해왔었다. 이는 문교부의 대학 학생정원령상 학과명칭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문교당무상의 혼란을 비롯해 어문정책상 외래어 표기법과 일치하지 않는점, 학내외의로운 논란을 빚어왔는데 74년 본대학의 실험대학화 이후 이문제가 본격화으로 거론되었다.

이를 위해 교무처에서는작년부터 각학과 교수의 의견을 들어 이 문제를 검토하는 의에 올해 각 학과장으로부터 설문응답을 받아 의견을 종합, 금년초 문교부에 프랑스어과, 중어과, 러시아어과, 에스빠냐어과, 이탈리아어과, 포루투갈어과 바이어과, 베트남어과등 8개 학과에대한 기존의 고유학과 호칭사용안을 제출한바 있다.

문교부에서는 지난 19일대학신설생 정원 조정안 발표와 함께 그중 포루투갈어과와 베트남어과 2개과만 허용했는데 뿌이어 이번에 통일, 조정되게 된것이다.

한편 변경된 각 학과호칭의 영문표기중 H로 써 왔던 힌디과는 인도어과로 변경호칭에 따라 아니셜표기상 난점이 있어 앞으로의 표기방법이 주목된다.

문교부의 대학학생 정원령에 따라 변경된 학과호칭은 아래와 같다. (괄호안은 과거 학과명)

<외국어학부>▲불어과 (프랑스어과) ▲독일어과(도이쳐과) ▲노어과 (러시아어과) ▲서반아어과 (에스빠냐어과) ▲이태리어과 (이탈리어과) ▲포르투갈어과 (포루투갈어과) ▲태국어과 (타이어과) ▲화란어과 (네덜란드어과) ▲인도어과 (힌디과) ▲스웨덴어과 (스위이든어과)

<교육·사회학부>▲불어교육과 (프랑스어교육과) ▲독일어교육과 (도이쳐교육과) 이상12개 학과.

김대학원장이임
청주대학장으로

김성희 본대학 대학원장겸 부여대학원장이 청주대 신임학장으로 선임됐다.

관선이사로 구성된 청주대학이사회는 김성희 대학원장의 학장취임을 9월27일자로 문교부에 승인요청했다.

문교부의 승인결정은 10월초에 있을것으로 보이며 김성희대학원장의 정식부임은 10월15일경으로 예정되고 있다.

김성희대학원장은 72년 2월7일 본대학 부여대학원장으로 첫 부임하여 77년 12월20일 부여대학원장직을 사임했다가 작년 2월8일에 대학원장에 취임했고 12월1일자로 부여대학원장직을 겸임해 왔다.

제6회 외문축제 막 내려
학술행사 현격히 저조해

개교 25주년 기념 제6회 외문축제가 29일 카니발 행사를 끝으로 24일부터 시작된 6일간 행사의 막을 내렸다.

24일, 우천관계로 장당에서 거행된 전야제 행사는 축제개최선언과 연대장인사등의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최한복학장은 격려사끝동에 축제기간동안 정열과 낭만을 마음껏 구가하여 이주의 막임에 일종 백진해결점을 방부했다.

예정시간보다 30분가량늦게 시작된 전야제의 1부행사에 앞선 개막식에서는 「각국민속의상 경연」과 「각국축제의광경」등 프로그램이 우천관계로 취소된 채 「춘곡」「춤강습」「방송제」등으로 진행되었다.

축제기간중 막내 전역에서 세민제녹과방영등 각종 전시회, 교양강좌, 연주회, 바둑대회등 27일 폐막한 모의올림픽과 함께 학내 축제분위기를 고조 시켰으며 28일에는 민속잔치, 외대가족잔치, 연등놀이및 팔씨름등으로 「부모님을 모시고」행사가 많은 부모님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

제1회 어학생축제로 선보인 「미네르바축제」의 26일「해스비알」행사는 이번 축제행사중 특히 돋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미네르바강좌」「시어터바일」「리스트 미네르바경관」등은 학생들의 호응과 주관측의 충분한 사전 배려가 필요했던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번 제 6회 외문축제는 예년처럼 많은 학생이 참여 성황리에 막을 내렸는데 앞으로의 축제행사를위해 고려되어야할 점도 적지않은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에 있었던 몇몇 행사의 예고없는 취소와 몇몇행사가 제시간에 시작되지 않는점, 각 프로그램에관해 학생들에대한 홍보와 준비불충분으로 해석되는 미소의 흔만, 기부관계와 함께 학술행사의 절대 빈약, 공연장소의 부족, 주최측과 행사장 학내정리를 많은 몇개 서어쉽사 원동과의 유기적 연결이 부족했던점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축제행사의 폐단으로그 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지 배격이다. <축제취재팀, 화보.

모의 올림픽 폐막
일본어과 종합우승 차지

제12회 모의 올림픽이 지난달 27일 오후6시 폐막식과함께 열려 8일간의 막을 내렸다.

김성희대학원장, 안병만학생처장과 내외귀빈이 참석한가운데 거행된 이날 폐막식은 성취발표와 시상식, 김성희대학원장의 폐회사 순으로 진행되어 오랫기하장, 국기하강식에이어 연대장 김진수(P·3)군의 폐회선언으로 끝맺었다.

28개 학과의 선수 1,074명이 참가하여 열전을벌린 이번 모의올림픽에서 영예의종합우승은 일본어과에 돌아갔고 아랍어과, 경제학과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고이, 어자부에서는 종합우승에 한국어 교육과, 2위, 3위에는 일본어과, 중국어과가 각각 차지했다.

각종목별 우승학과와 최우수선수는 다음과같다. (괄호안은 최우수선수)

▲축구: 1위—J과 2위—A과 3위—U과 (J 송민희)
▲야구: 1위—P 2위—C 3 J (이범식) ▲배구 (남): 위—1위—A 2위—F 3위—J (A 이준재) ▲배구 (여): 1위—KE 2위—J 3위—GE (KE 정규옥) ▲농구(남): 1위—Ec 2위—I r 3위—G (Ec 한상림) ▲농구(여): 1위—EE 2위—A 3위—C (EE 유순희) ▲핸드볼(남): 1위—Ir 2위—Ec 3위—P (Ir 송용주) ▲농구 (여): 1위—S 2위—Sw 3위—H (S 김선주) ▲소프트볼: 1위—J 2위—C 3위—KE (C 이현주) ▲줄다리기: 1위—C 2위—Ec 3위—A ▲마라톤: 1위—송동식 (L) 2위—차성진 (R) 3위—정금호 (E) ▲육상 100m (남): 1위—J 2위—N 3위—F 100m (여): 1위—KE 2위—E 3위—PA 남자 800m 계주: 1위—F 2위—E 3위—D 여자 400m계주: 1위—KE 2위—E 3위—G

전본대생석방
제한절 특사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 복역중이던 전 본대학 2년 김천영 (경의과) 군이 지난 7월17일 오전 제한절 특사로 가석방되었다.

김군은 이날 긴급조치위반자 85명과 함께 형집행정지로 출감한 것이다.

각국번역시화전
외국어학부 14개과

각국어 번역시화전이 미네르바와 학내전역, 포룬입구에서 지난달24일부터 29일까지 열렸다.

해외유학규정 개정
자비유학길 넓어져

문교부는 해외유학에 관한 규정을 개정발표했다.

해외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해외유학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취지의 이번 조치에서는 종전과 달리 대학전학년성적이 평균80점이상이면 다른 절격사유가 없는 한 유학시험이 면제되어 자비유학의 길이 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시험면제대상자는 이때 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어학실력인정서등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계속 낙수 3면에>

카세트복사실시
하루 20여명 신청

시청각 교육실에서는 지난달 3일부터 시청각 자료실에 비치된 자료를 신청자에게 복사해주는 카세트 테이프 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30일 일년에서 9백여만원을 들여 도입한 카세트 고속복사기는 앞뒤면요 동시에 녹음할 경우 60분용 테이프 3개분 4분만에 녹음할 수 있다.

2학기부터 1개당 5백원의 수수료를 받고 학생들에게 복사를 시킬한 이때 20여일간의 복사신청 현황을보면 하루평균 20여명이 복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종전 입 때 이프롤 복사할때의 하루평균 2명에 비해 10여배에 달하는 이용률을 보인 것이다.

현 사운드 라이브러리의복석수는 총 192석으로 이 중 학생들이 자유로이 이용할수 있는 좌석수는 183석이며 시험기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좌석이 비는 실정이나 2부 대의 등원, 음인분포의설치, 중시종덕대학원의 개설등으로 이용자가 늘어날것에 대비, 좌석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험기간중의 이용자는 평소의 100명선에 비해 3배에 달해 대부분의 학생이 시험준비만을 위해 사운드라이브러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70년대를 보내며
외대·외대인 이것만은 지양돼야 <4>

이 인 용

연약한 문, 풍문할 수 없나
언어없는 학문 존재불가능
—외대학풍 정립을 위해

외대생들은 영부세처럼 주름이만 나붙거리지 학문적 길이가 전혀 없다고 론의를 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너와 나에는 두가지 부부가 있으니, 그 하나는 언어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학문이란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일 진이들이 코 큰 녀석들과 어울리는 외대생들을 보고 질투심이 나서 하는 말이요, 다른 하나는 진정 외대학풍을 적정하여 조금은 주기어주는 듯하면서도 입시적 비판을 함으로서 교수 학생들로 하여금 심요한 학구에 눈을 뜰틈도록 하고자 하는 말이다.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더욱 날카로운 평을 한다면, 외대생들은 학문은 커녕 주동이조차 제대로 놀려대지 못하는 가련한 방랑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언어에도 학문에도 관심이 없고 그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 넘기느냐가 지상최대의 문제인듯 심각한 미궁 속을 헤매이며 방황하지고 있는 것이 외대생들이다. 대학생들이 가야할 길을 아무리 외쳐 보아도 허공을 맞힌 공염불일뿐 울려오는 메아리는 전혀 없는 것이다.

대학의 이념이란 학문하는 데 있다. 대학인의 사명이라면 교수 학생 구분 없이 오로지 학구적인 탐구만을 추구해야 한다. 혹자는 교양인을 위한 전반적 교육을 주장하지만, 이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미 끝나야 할 과제이다. 연구하며 강의하는 교수와 연구하며 토론하는 학생이 있어야 할 곳이 대학이지, 학자모집 모셔놓고 시시한 운동회나 학예회를 하는 곳이 대학은 아니다.

외국어를 숭앙할 수 있다고 해서 언어를 할 수있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오산인 것이다.

그러나 외대인들에게 부족한 가능성이 있다. 외대의 커리큘럼을 보면 나무랄데 없이 요란스럽고 거창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만일 4년간의 강의와 실습이 교과과정대로만 깊이 있게 정상적으로 취급된다면, 외대생들은 언어와 학문을 어느정도까지는 맛볼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게다가 대학원 과정까지 거치게 된다면 구태여 낯선 이국땅에 가서 유학생활을 할 필요조차 없을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볼때 최급 2년동안에 해당 외국어를 습득하고, 다음 2년 간에는 이면 심야이면 간에 이급 바탕요로한 학문의 문턱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있으며, 대학원에서는 선택된 전공분야의 심요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것이다.

허지만 이는 학교당국과 교수와 학생이 관입실책가 되어 오직 하나의 학구책 이념만을 위해 줄달음치는 경주에 한하여 실현될 수 있다. 학교당국은 교수와 학생이 마음놓고 연구하며 토론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할 것이고, 교수는 대학의 사명과 임무를 심한하는 바탕이 되어야 할것이며, 학생은 오로지 깊이 있는 배움만을 추구하는 진지한 태도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외대인들이여, 빛바다 외국말을 지절일수 있다고 만족하지 말고, 결코 방랑하는 광대가 되지도 말며, 우리의 푸기인 언어를 봉해 스스로 심요한 학문의 문을 서서히 두드려 주기를. <문학·부교수>

제 3 회 외대명인전
명인박윤서(Ir·1)군

학내 바둑실 재개장과함께 제 3 회 외대명인전이 지난25일부터 28일까지 학생회관 3층 6호실에서 성황을 이룬가운데 개최되었다.

금번 명인전은 2개조로 나뉘 A조(1, 2급)에 24명이 참가하여 리그로, B조(3~7급)에 98명이 참가, 토너먼트로 명인과 준명인을 뽑았다.

지난 25일 연대장의 치사와 이종인 지도교수(R과)의 격려사로 시작해 4일동안의 일전끝에 A조 제 3 회 외대명인엔 박윤서군(Ir·1 아마4단) 준명인은 안성주(GE·4아마4단)군이, B조는 우승에 박용남(PA·2 4급) 준우승은 김남태(PA·2 7급) 군이 차지했다.

알 림

본보 10월11일자는 중간고사 관계로 휴간하여 290호는 10월21일자로 속간됨을 알려드리오니 독자제위의 착오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움의 자리

▲10월이다. 10월은 연휴로시작한다. 닥당하게 불쾌했던 70년대의 마지막 79년을등뒤로 수있다면…. 지박물보10월이연휴로 시작한다는사실은퍽경이 시사(示唆)적이다. 도희(都會)도 대학도, 속해있는사람들도모두 연휴의 권안할 속에들려 있는 듯하다. 행위에대한 일종의 유예(猶豫)상태인 셈이다. 9월의 월력을 찢으면서 넓안갖기는 생각은 아닐지라도 월력이 지닌 표면상의 절서는자주 우리의 생활을 대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정신이차릴겨 여유해인 진실성마저 마찬가지로 대치될 수 있다는 학자도갖게되고.

▲훈철의 「관단 중지」라는 사유의 실험 같은 방식은 그러한 착각을 깨트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러한 개념틀은 진부한 표면상의 질서에 영합하지 않는 신선함을 부여해 주기 때문이다. 이때의 신선함이란 말은 사유와 사고(思考)의 건강함을 의미하고 있다. 건강함이란 일이 요즘처럼 무시될 때도 없는 것같다. 이 말의 기준은 그 방식의 명·암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대부분 기성(既成)의 관습에 대해 암(暗)의 기능을 할 때가 많다. 그럼에도 그것이 건강성 으로 판단되는 까닭은 무엇 일까. 일단은 기존의 질서이 개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본다. 그러한 전제가 성립될 때 이러한 말은 명·암의 구분 이전에 건강한 개혁 의지라는 말과 동지(同誌) 관계에 놓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나와 이해 관계가 없는 것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두려하지 않는데, 나아가서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관심을 표명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공통의 심리상태가 대학이나 한 사회에서 초래되고 발생하는 「일」들을 일마나 많이, 「일」이 아닌 것으로 몰어 두고 소수의 해방사항으로 몰려 버리고 마는 것인가. 관심 표명의 기회가 탄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관심 표명이라는 건강성을 상실해 가고, 그 필요성과 그것을 가진자의 존재가 경원시되는데 문제가 제지 않은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고의 건강성을 표출할 수 있는 때도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획득하는 것이라고 볼 수있다.

▲관단중지(Epoché)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유의 건강성은 그것이 언제나 옳기 때문에 긍정하는 것이 아니다. 건강성은 확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평범한 것이었어도 회소하기 때문에 마땅히 가치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다. 보편화되지 않은 「어려움」은 누구나 소유하고 있다. 그것은 복잡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모든 개인 소유 「어려움」이 보편화 되어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단지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무관심의 자유, 안으로만 파고드는 자유능이 미 자유의 범위를 일탈하여 자유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 되지 않겠는가. 표면상의 질서, 월력상의 연휴가 우리의 가능한 선택기회까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관심 표명이라는 건강성을 상실해 버린 것이 아니라 획득하는 것이라고 믿자. <김강민>

◇지난 27일 폐막된 제12회 모의올림픽시상식광경.

중간고사 8일부터
언어실습·회화는 2~6일

2학기 중간고사가 오는10월8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다.

언어실습과 회화시험은 10월2일부터 6일까지 실시되며 10월초의 일탈은 휴일관계로 시험실시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정책제출일인 24일까지 교수재량에 의해 필기, 태도도, 과제물등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다.

2부대에 한해서는 10월초스피드테이이가 주어지며 그에는 모두 정상수업이 진행되게 된다.

한편 3학년 재학생들의 수학여행은 중간고사가 끝나뒤 10일부터 17일 사이에 실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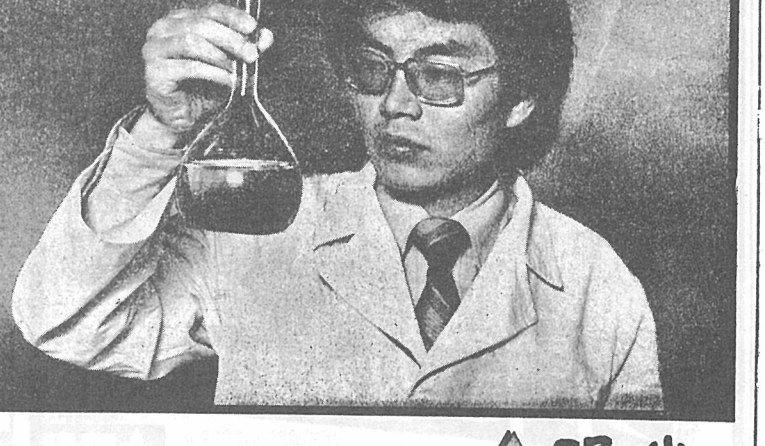
한수다

▲행사, 연휴, 중간고사는 예정대로.
—가을은 조락(凋落)의 계절, 년년의 계절인가?
▲축제, 학술행사 눈뜨고 찾아도 없다고.
—축제는 쉼때가 즐기는 것이라고 대답하면 할 말 없지만….

미래 창조의 주인공이 되려는
우리의 집념은 같습니다.

꿈과 낭만이 함께하는 젊은이의 크고, 작은 세계—
이 세계속에 조국의 밝은 미래가 가꾸어지고 있읍니다.
뜨거운 정열과 투철한 신념으로,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는 젊음의 끊임없는 노력에서
우리는 번영된 조국, 희망찬 내일의 모습을 봅니다.

조국 번영의 의지를 세계에 심어가는 現代



▲現代

사설

학기의 중반에서

다시 마음의 끈을 조일 때

가을 학기를 맞이한지는 벌써 한달이지만 그간 참으로 분주하고 다사하기만 했던 것 같애요. 벌써 연고제 없이 첫달 모의 중간고사를 치렀고 곧 학기중간 방학의 전모가 밝혀질모레가 벌써 많은 흥분과 기대에 부푸는동 파연 이 가을은 심심의 풍요를 만끽하게 해 주었다.

그러나 풍요한 가을 청산을 마치고 조용히 학생본연의 연학자세를 가다듬는 순간, 우리는 아직 이런 분위기의 중반에 서 있다는 사실에 놀프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어느 때보다 비화사정이 복잡하고 다난한 시점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로 욱내외리 첫지 관도에도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고, 세계적 분위에는 가 경제적 긴축의 여파는 계인 및 가정생활에 적지않은 압박과 결제를 요구하는 등등, 그저 범연하고 안일한 태도로써 임하기에는 편편치 않은 점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업이라는 아은한 울타리 안에서 오로지 탐구와 연찬에 몰두하는 청순을 즐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젊음과 낭만이 함께 깊을 펴는 대제전을 벼졸이 환호속에서 마음껏 흥을 풀어보았다. 뜨앙겋있어 학생에서인이 분 수있는 동거은 정장이요 많은 사람이 인망의 눈길로 바라보는 젊은세대였다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홍분과 도취에서 다시 깨어나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고 응가슴을 내로잔는 한회지성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 인간사의 모든 아름다움은 각기 사물이 제자리에서 본수를 지키고 조화가 유지될 때 비로소 나타나고 더욱 심화된다. 그것이 바로생활의 미학인데, 봉부는 진심에서 정치가는 연민에서, 학생은 복장에서 독서와 사색에 열중할 때라야 각기 빛과 아름다움의 극치를 볼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요체써만이 간간이 갖는 휴식과 위락(慰樂)이 오히려 값진위한 세월 위의 원천이되고, 넘기끝이 된다. 이런즉 우리는 값진 생활의 미학을 위하여 다시 혜살피리에서 깊은 사색과 독서삼매경에 뜬입하는 학생 본래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때는 바야흐로 깊은 가을로 접어들었다. 사색과 독서는 진실한 인간이 되기 위한 자기도야의 지름길이다.

2학기 중간시험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섰다. 우리는 시험을 위한학교생활보다 학심하고 보람찬 학교생활을 권면하기 위하여 심심하는 시험이라는 것에 다시 생각을 깊이 하여야한다. 성적순 평가방기라는 방법으로의 시험이긴 하나 그것이 학교생활의 전부가 아니며 진실보하여 주지없는 학교생활의 정수를 찾으려면 어디거지나 자발적인 탐구욕과 사색을 통한 자기계발에 몸을 던져야 한다.

차리 현대학의 복수성이 이미하다고 해서 인이기는 의 수업만으로 대학생활의 전도 (正道) 를 걷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지나치게 합리적이다. 근간 젊은이들의 자기반성의 소리를 듣건데 대학이 유독 전문지식의 섭취나, 사회진출을 위한 도구적 지식연마에서만은 인간다는 소리가 쉬지 놓아주는 것 같다. 과연 옳은 자각이며 시의에 맞는 제의이다. 학문은 비개성적이며 엄주관적일 때 부차적인 유용성이, 더크고 더많다는 학문본태의 진리를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학생활의 올바른 길이란 겉으로 부파하는 교과과정과 시험성적에의 관심 이상으로 자기도야를 위한 사색과 독서로써 전인적인 지덕을 갖추는 것이라고 할 만하다.

지난, 여름을 지나면서 자칫 해이해진 면학업이나, 또는 개학후 20여일만에 법이졌던 교내행사로 부지불식간에 느스러진 마음의 고삐를 다시잡고 면학일념의 학문생활로 되돌아 갈 때가 바로 지금이다. 보통 2학기는 기심 수강과 관계을 기저로 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일수로 바지도 불과 백여일인데 간간이 겹들이는 내외행사로 많은시간이 소비된다는 점을 참압하여 주어질 시간이나마 학심하게 활용하는 놓기를 절해주기를 바랍한다.

모든 사람이 부정이전 보람을 맺고, 열매를 거두어들이고자 분주한 일과에 전념하고 있다. 하물며 학원에선 학기의 중반을 맞는 우리가 백사에 소홀할 수는 없다. 면학 학구를 위하여 다시 마음의 끈을 동여맬 때가 바로 이때다.

「과학」은 합리적 사고에서 나오는가

과학과 「합리성」과는 무관해

오늘날 이데올로기로서의 과학과 과학기술은 합리적인 바탕에 근거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이것이 지닐한 수학적 도식과 고도의 기술을 사람하는 의미에서는 옳다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을 익히면 인간도 기계처럼 정확지밀하게 합리적이 되리라는 믿음은 마치 16, 7세기에 시계의 모델을 통해서 이루어진 정확성과 확실성, 그리고 예측가능성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고, 합리적인 과학기술은 인간의 복지를 약속해 주는 것으로 믿게끔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도 기계는실수할 수 없다는 신념은 더 나아가 기계는 실수 더 근이적 가고있는게 하나의 기정사실로 되고있는데 대개가 그렇게 믿고 있는것이 사실인가 다시반성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오늘날 과학사나 과학철학이 밝혀주고 있는 사실은 과학과 인간의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온전한 인장을 쉬하는 『구조혁』와 그의 후계자들의 이론바 비판적 합리주의는 이 합리성의 이념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지만, 일반적 경향은 이미 반대되는 것으로 볼수 있다. 1960년대와 70년대의과학사와 과학철학의 방법론 논쟁에서 가장 중요하게대두된 문제는 ①과학의 본질적인 성격이 무엇인가? ②과학발전이 합리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느냐? 즉, 과학적 발견의 논리가 있느냐? 하는것이다.

첫째 문제는 과학을 분제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보는 『칼·포퍼』의 의견과 수수께끼풀기의 활동으로보는 『쿤』의 의견으로 양분되고 있고, 둘째문제는 일반적인 가설을 만들어기전에, 가설구상이 어떻게 가능한가, 즉 가설구상에 일정한 논리가 있느냐, 하는 문제로 집약된다. 첫째 문제에서 『포퍼』의 『문제해결의 논리』과 『쿤』의 『수수께끼 풀기』의 근본적인 차이는 『쿤』이 지적하고있는 것처럼, 과학행위의 단일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어진 전형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과학자 자신에 있다는 것이다.

『포퍼』는 과학이란 추측(conjecture)과 그 추측에 대한 비판적인 반박(refutation)—바꾸어 말하면, 과오와 그 과오에 의한 허위입증(falsification)—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반면, 『쿤』은 전통(檢證)의 역할이 과학의 이론구성에 일차적인 중요성을 가진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문제, 즉 『과학발견의 논리』에 관해서는 1958년 이미 『한슨』이 한 가설을 받아들이는 이유와 그 가설은 던져 제기하는 이유를 구분하고, 이미 1935년 『포퍼』는 한 이론을 화학하거나 창안해내는 최초의 단계는 논리적 분석과는 관계가 없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문제는 오늘날 과학철학의 중요인물들인 『포퍼』 『쿤』 『라카토스』 『파이어라벤트』 등이 활발하게 논의하고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는 부피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는 오늘날 과학 철학과 과학사가 밝혀주는 일반적 인간관에 대해서 시술하고 과학기술과 합리성이 밀로 관계가 없는것임을 밝히고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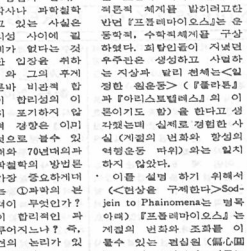
과학의특성은모형성

첫째 과학의 가장 특징적인 성격은 그 모형성(模型性) 이다. 모형은 한 대상이나 상태를 일정한 틀속에 집어넣어 그것을 용이하게 조작할수 있도록만든 인위적인 체계나 방법을뜻한다.

바라서 대상자체와 그 대상에 대한 모델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모델은 일반적으로 체계의 종류, 방법 혹은 연구원리, 기능에 따라 구분되며, 구체적인 모델, 이론적인 모델과 심리모델, 형식적인 모델등이 있다. 과학은 이 여러가지 모델을 사용하여 개념설정과 연구작업을 진행하는 형태이다. 과학의 모델적인 성격은 법칙화의 능성뿐만 아니라, 동시에 과학이 감정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 대표적인 고전적 예는 피탈의 천문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16, 7세기 과학혁명이전 서양의 천문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체계와 『프톨레마이오스』의 그것이 공존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학적인 모델에 따라 자연의 목적론적 체계를 밝히려고한 반면 『프톨레마이오스』는 순동학적, 수학적체계를 구상하였다. 피탈인즉이 지녀던 우주관은 생성하고 사멸하는 것상과 달리 천체는<일정한 원운동>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기도 함) 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경험한 사실 (케플러의 변화와 항성의 혁명운동 따위) 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를 설명 하기 위해서 <<천일을 구제한다>>Sodjein to Phainomena는 명목아래 『프톨레마이오스』는 계급의 년표와 조파를 이용수 있는 편심원 (偏心圓 Excentric…. 여기서 지구는 우주의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천체의 정류점 및 역행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주전원 (周轉圓 Epicycle) 과 주전궤도 (周轉軌道 D efereat) 천체의 일정불



강영안

「과학혁명」은 과학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과학혁명은 기존의 과학적 패러다임이 붕괴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사건이다. 패러다임은 일종의 「논가리개」 역할을 한다.
문에 의하면 과학활동이란 이미 앞에서도 말했듯이, 수수께끼를 푸는 활동(Puzzle-Solving activity)인데 어떠키되어 「패러다임」으로 특수 없는 영역 수수께끼 (이론) 가 부딪어 오면여 일단 그것을에외 (Anomaly) 로 제쳐 두었다가, 여기에 다시 손을 대기 시작하여 이론바 E-xtraordinary Science가 발생하고 여기서 패러다임의 전복, 즉 과학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문은 이를<게서발표 스위치>로 표현하고있다. 과학혁명이란 합리적인 이론설이긴 하지만, 여기서 과학의 합리성과 합리적 목적으로 바라는 인간의 협력을 한다. 이런의미에서 「정치적인 과학」운동은 정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현실과 과학이 유리되지 않는는 것을 동시에 과학기술과 과학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 인민다는 것을 뜻한다. 즉 인간없이 행위요로서의 과학이외의 승조작은 필연적으로 가치판단과 윤리적 책임의식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론과학의경우 구체화인 형성하는 것은 갈등과 구조 작은에로 물리화학의 경우를 보라. 탄소의 동위원소인 ^{12}C와 ^{14}C는 단장을 기호로 표시하나 남폰들의 동위원소인 $^{1}H_2O$, $^{2}H_2O$, $^{3}H_2O$는 라자나H_2O, P_2O, T_2O로 표시 한다. 여기서 마지막 두 분자식은 각각 둘과 셋을중는는 희합어의 두분자로더지했다. 왜냐 하면 이 두 동위원소는 해독성이 있기때문에 그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있는 사고를 방지하자는 의도에서 나온것이다.

기술과학과 그 기술적용 과정에서 윤리의 문제가 보다 크게 대두되는데 과학기술을 창안하고 연구 개발이용하는 주체는 인간이지만 일단 인간의 손을거쳐 이뜬리진 과학기술은 인간과 관계없이 과학적인 위력을 가지고 있다. 과학 기술의 미숙에도 그 원인은 있겠지만 그보다도 일단 기술을 하고 반드시 과정에서 생기는 부조리와 그것을 관리 책임을 져야할 사람의 태만이 더욱 큰불행을 초래한다.

끝으로 『전국민의과학화』 운동과 관련해서 개략적인 견문을 덧붙자 한다.

첫째, 과학기술의 사회적 적용과 확장은 그 성격상 불가피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고방식의 합리화를 기한다는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과학자체가 잠정적이고, 필연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 않고, 또한 과학기술이란 미명으로 거짓된 합리화를 조장하면, 그 합리화란 문학, 예술, 종교 따위는 물리치고 자기 이익에만 몰급하는 「사실적」인 인간만을만들어 냄것이다.

둘째, 사고방식의 합리화란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윤리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과학기술과 윤리의식이 항상 동반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먼저 공학도와 기술인, 기술자들에게 올바른 직업윤리, 노동관등의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과학기술의 발전내지 고도의 산업국가 건설을 위한 인간자원의 확보는 이런신의 한부분을 이루며, 이 현실의 역사불정개해 나가는 전략의 역할을 한다. 이런의미에서 「정치적인 과학」운동은 정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현실과 과학이 유리되지 않는는 것을 동시에 과학기술과 윤리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 인민다는 것을 뜻한다. 즉 인간없이 행위요로서의 과학이외의 승조작은 필연적으로 가치판단과 윤리적 책임의식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의합리성과 인간의 신념

과학의 합리성과 계몽주의의 인간, 즉 이성적인인간은 밀접한 관계가있다. 두말할 필요없이 서양인어에서 합리성과 이성을 일컫는 말이 같은 유래를가지고 있다. 칸트가 말하는 「이성적인간」—자기의이성을 스스로 사용할 수있는 인간이란—를론 칸트가 시대정신을 표현하고 계몽주의의 목표와 수호정신을 뚜렷이 단언하고 있다. 그것은 「과학혁명」이 이전의 사회부조리와 미신의 타파를 의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필자는 이런한 비판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과학혁명이란 합리적인 이성의 대한 신념을 확립내 버린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사실상 올리려고 성숙하게 했던 것은 있는 인간을 뜻한다.

합리성이란 과학적인 이념을 표현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윤리적인 함축이 들어있다고 생각 한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은스스로의 이성을 사용하여을 리적인 판단과 고려를 쓸분히 할수 있다는 태도를 뜻한다. 과학기술을 익힘으로 이려한 사고 방식이길러진다는것은 원칙상 동일하다. 그러나 만일 과학기술과 윤리의 관계를 그 어느시대보다 중요해진것을 부인할수없다.

과학의 태도는 「윤리」와 부합돼

과학은 방법과 규칙을사용하여 주어진 현상을 설명하는 기능과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또는 지배하는 기능을 가지고있다.

최만의 철학자 『반퍼슨』(VanPeursen)이 말한 대로 과학은 현실과 괴리아에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신의 한부분을 이루며, 이 현실의 역사불정개해 나가는 전략의 역할을 한다. 이런의미에서 「정치적인 과학」운동은 정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현실과 과학이 유리되지 않는는 것을 동시에 과학기술과 윤리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 인민다는 것을 뜻한다. 즉 인간없이 행위요로서의 과학이외의 승조작은 필연적으로 가치판단과 윤리적 책임의식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의합리성과 인간의 신념

과학의 합리성과 계몽주의의 인간, 즉 이성적인인간은 밀접한 관계가있다. 두말할 필요없이 서양인어에서 합리성과 이성을 일컫는 말이 같은 유래를가지고 있다. 칸트가 말하는 「이성적인간」—자기의이성을 스스로 사용할 수있는 인간이란—를론 칸트가 시대정신을 표현하고 계몽주의의 목표와 수호정신을 뚜렷이 단언하고 있다. 그것은 「과학혁명」이 이전의 사회부조리와 미신의 타파를 의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필자는 이런한 비판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과학혁명이란 합리적인 이성의 대한 신념을 확립내 버린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사실상 올리려고 성숙하게 했던 것은 있는 인간을 뜻한다.

합리성이란 과학적인 이념을 표현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윤리적인 함축이 들어있다고 생각 한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은스스로의 이성을 사용하여을 리적인 판단과 고려를 쓸분히 할수 있다는 태도를 뜻한다. 과학기술을 익힘으로 이려한 사고 방식이길러진다는것은 원칙상 동일하다. 그러나 만일 과학기술과 윤리의 관계를 그 어느시대보다 중요해진것을 부인할수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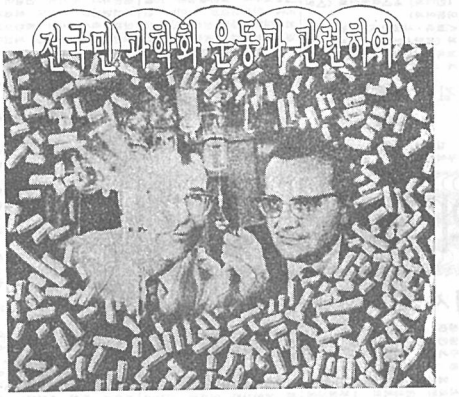
과학의 태도는 「윤리」와 부합돼

과학은 방법과 규칙을사용하여 주어진 현상을 설명하는 기능과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또는 지배하는 기능을 가지고있다.

최만의 철학자 『반퍼슨』(VanPeursen)이 말한 대로 과학은 현실과 괴리아에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과학화 운동은 윤리적 책임으로 귀착돼

인적자원 확보위해 하부구조 개혁 필요



▲과학기술의 사회적 적용과 확장은 그성격상 불가피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고방식의 합리화를 기한다는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본문에서>

과학이론…. 논리적 분석과는 무관해

과학의 모형성(模型性)은 객관성 결여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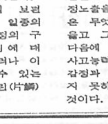
▲이성(理性)과 감정(感情)을 논리적으로 분리, 전개하여 정리된 형태의 주제로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초월 (超越) 의 경지라 불리워도좋을 것이다.

또한 이성과 감정을 자재 (自制) 와의 (能) 자제의 단순한 주종관계로 이해하려한다면 낙엽을 태우면서 피어나는 연기를 두고 인위적 법칙에 의한 자연현상이나, 아니면 자연의 법칙이 이끌어가는 화려 (花麗) 의 하나이나의 논쟁처럼 기본적 관념의 차이로 남을수밖에 없을 것이다.

▲축축히 대지를 적시는 가을비가 포도 (鋪道) 에 스미는 날이면 설렘뜻 그 빛속으로 뛰어갈고픈 충동을 느낄 때가있다. 이러한 일시적충동은 어쩌면 내면에 잠재된감정이 순간적인 자극에 의해 표출되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있다. 또 그것을 「비를 맞고 걸어보고픈」 식의 보편 바탕한 이성적 관념에 대한 일종의 거부감 수 도있고, 이성과 감정의 구별이 없었던 주방이전의 「혜연」에 대한 향수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지적 (知的) 센티멘탈리즘의 권리 (片鱗) 이라면 지나친 억측일가?

▲도 하나의 가정을 세워보자. 때로 우리는 전혀 근거없는 소문에 말려들거나, 자신과는 관계없는 사건요모인해 비관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친 감정노출을 경험한다. 그리하여 년래적 이성을 상실하여 심(火)을 상쇄시킬만한 욕(慾)을 연기보다는 오히려 전가 남 낯짐을 내든의 정상성 여부조차 의심받는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둘리고 말 때가있다. 바라서 이의 극복을 위해서 개인의 감정은 심추된 사실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 즉 수단의장재적 요인이어야하며, 실질적 동인(動因)은 어디까지나 이성적 관념이어야 할것이다.

▲만용 (蠻勇) 이나 자칫빠지기 쉬운센티멘탈리즘의 일작으로 이성을 가장 (假裝) 한 감정의 표현도 자기정상성의 회복을 위해서는 합리화심수 있다는 등식은 반드시 배제되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원인의 앞자화나초해킬 결과의 정화심성세분에 이성이 이성적 관단에 의해 제어 (制御) 되어 매심장노출을 방임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은 부엇으로 설명필수 있을까? 행위의 그것과 그름의 관단은 방법이 순수 한 다음에 거론될 문제이다. 요는 이성적 사고능력이 호도 (糊塗) 되어 순수 한 감정과 철순한 이성의 차이를 구년짓지 못하는데 그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이다.



호도(糊塗)

▲만용 (蠻勇) 이나 자칫빠지기 쉬운센티멘탈리즘의 일작으로 이성을 가장 (假裝) 한 감정의 표현도 자기정상성의 회복을 위해서는 합리화심수 있다는 등식은 반드시 배제되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원인의 앞자화나초해킬 결과의 정화심성세분에 이성이 이성적 관단에 의해 제어 (制御) 되어 매심장노출을 방임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은 부엇으로 설명필수 있을까? 행위의 그것과 그름의 관단은 방법이 순수 한 다음에 거론될 문제이다. 요는 이성적 사고능력이 호도 (糊塗) 되어 순수 한 감정과 철순한 이성의 차이를 구년짓지 못하는데 그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이다.

구체적 비전제시 하기를

—분교설치·증원에 대해서

질적저하대비해야

현재 본교학교의 현계에 이른 수용능력을 감안해 볼때 우선 급정책인 측면에서 이번 분교 설치를 반가움이고 싶다.

그러나 분교설치적에에 교사 전임이 미비한 상태로 남아있는 시기에 미리 분교 입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우려되는 전도 쩍지않다.

300명정원의 분교입학생은 급정책으로 서울캠퍼스에서의 수학이 불가피한데 서울캠퍼스 입학생과의 보이지 않는 불협화음도 고려해 보아야 할것이다. 이번 조치는 심심적 증원조치로 볼수 있는데 분교입학생과 본교입학생을 합반한다는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반을 새로 구성한다해도 현재의 교실난으로 미루어 보면 쩍지 않은 어려움이 생길수 있다. 그리고 증원된 인원수에 상응할만한 교수진 확보도 선결을 요하는 문제점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분교를 투고있는 비부분의대학이 그렇겠지만 분교입학생과 본교 입학생과의 질적인 수준의 격차가 반드시 과장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질적저하를 미리 방지할 수있는 제도적인 묘안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것이다.

김 영 호
<불어과 부교수>

만시지탄의 느낌

현 외대의 부지가 겨우 3만여평밖에 되지않은데 반하여 교수, 학생 그리고 제반 · 비학기구및 시설은 종합대학교의 규모를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분교이든 혹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대학 부지는 확대되지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분교 설치는 반시지만이 필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늦었어도 외대는 그것의 부지의 확장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시대에 요청인 고도의 학술및 문화고류의 첨에적 의무이행을 고려할 때 외대의 종합대학교로의 미래지향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그동안 본대학이 학술및 문화고류를 중하여 고등교육 분야는 물론 사회 전반적인 문화 발전에 끼친 공헌만 하더라도, 외대는 진작 종합대학교로 승격이 되었어야한다. 그리고 실제로 외대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종합대학교로서 새로운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서 분교설치에 관한 기획과 준비를 하면서도 일지당은 정책에 전체 캠퍼스가 용인으로이전해야 된다는 사실이 섬사리 공정적으로는 생각되지 않기때문이다.

손 광 춘
<정외과 · 3>

학생2분화없도록

종합대학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획기사중분교설치에 관한 전망과 문제점을 관심있게 읽고 어느정도 「분교설치」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고 있다는 생각은 했었다.

현 이문동캠퍼스의 포화상태는 이미 어려비 지적된 바 있거니와 종합대학—단. 외대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을 전제로 한다면 결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81년에나 실질적으로 응인분교에서 신입생을 받아들일수 있다는 점등을 고려 해볼때 당분간은 본교 (本校) 신입생들과 함께 강의를 받아야 하는 반쪽 「학생의 2분화」 현상이 초래될가 싶이 우려 된다. 더구나 강의실의 부족이나 일부학과 교수진의 부족현상등을 더해서 나갈 계획의 입안이 과제일것 같다. 학교의 현실 기사에 의하면 궁극적으로 분교의 위치에 본대학 캠퍼스가 이전될 것이라고 전하고있는데 그렇게 될경우 학내이든의 항방은 어떻게 조정될 것인가에 대하여 주목을 해야하고 최선책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 태 석
<영어과 · 4>

동록금 융자절차 너무 복잡하다

—서류수속 절차에대한 타진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수학 (修學) 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실시되고있는 학자금 장기융자의 서류 수속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융자를 원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많은 불편을 줄 뿐 아니라 경원 당하는 사례가지있다.

장기융자수혜자는 월력 151명으로 배정되어 있었으나 2차 등록까지 마친 최종집계에서 131명만이 장기융자혜택을 받음으로 밝혀졌다. 융자신청에 원부해야할 서류에는 학장추천서 등 비롯 납입고지서, 6천원이상의 재산세납부보증인 증명, 인감증명 각 1통 (6천원 미만일경우 2인의 합이 6천원이상) , 본인, 보호자 인감 1통 (연대채무) 등 주민등록등본(혹은 호적등본) 등 무려 7~8가지에 이르고 있는 한편 지정된 보증인을 반드시 해당은행에서 확인해야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한다. 이러한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당수의 신청자가 도중에서 융자혜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않은가 하면 특히 지방출신학생들의 경우 학자한 학사일정 기간내에 보증인 출두문제를해결해야 하는 점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할 것이다.

이상은 사실은 6월경 최말신청자가 194명이었다가 해당T O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만이 혜택을 받은 결과에 불과하다고 있다고 보겠다.

이러한 서류구비상의 복잡성에 대해 학내의 관계자는 실제로 서류혜정은 은행측이 전담하고 있기때문에 학교측에서 이를 조정할 명권에 있지못하다며 그 고충을 토로했고 또 융자 신청 관계의 업무기관인 국민은행의 한 실무자도 「서류의 간소화는 미이상 계획한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6월경에 실시되는 최말조사도 현재의 공고나 게시만을 통한 방법보다 해당 학과생들의 실태에 대해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계획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출신학생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게 대다수 지방출신학생의 의견이다.

올 6월20일경에 융자혜택 공고가 붙고 서류수속문비기간을 일주일 정도 부여한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이런 점을 보완·시정하기 위해서는 방방기관(은행 등) 과 관계법의에 관련서류를 미리 파악하여 방학중 학수표를 우송할 법 이미 공지되는 서류명세서를 함께 우송하여 지방유학생들이 이에 미리 대비를 갖추도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서류수속절차의 복잡성이 융자혜택을 원하는 많은 학생들의 의욕을 중도에서 꺾어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인무 기자>

이문벌 상공 수놓은 25발 축포

—제6회 외문축제, 뒷얘기를 모은다

국은 안쓸고도

○…작년보다 1달정도앞겨져 거행된 6회 외문축제는 의외로 날씨가 쌀쌀한듯 택일은 그렇게 쌔좋지는 않았다는 점은.

장당에서 거행된 전야제에는 한잡유행하는「Disco」「춘곡」등이 엮어져 첫날 뵈었다 많은 관중이 운집했는데.

「Disco」시빔이 너무 아(?) 했던지 관람중이던 초대인사들이 서둘러 자리를 뜬는가 하면 춘곡에서는 주인하의 마이크 시설이 주최측 연기자의 성의를 무시해 해 관객의 질만쉬인 아유가 섞여오기도. 욱은안 쓸고도 손해고 연인들 커지는 경후도 있는모양.

어수선히 끝나

○…축제의 곳이라 불려지는「할렘」공연이 예상외 빗나가 많은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소식.

할렘을 앞두고 들려온 루머때문이었던지 이날 공연은 발한이 보통보다 넘게 장소가 만들어졌는가 하면 공연도중 조명마저 갖은 장린 거기다가 갑자기 공연분위기에 별 도움이 안되는 바이크쇼리까지 들려어수선한 매로 끝이 나버렸는데.

특히 공연이 끝나다음 춘심고인에 불미한 폭력사태까지 자행돼, 학내에서 무단히 폭력을 행사하는 일부 불지각한 춘심고에게입장 불 해주는 바.

검은「싱글」차림

슬랭이는 축제분위기를 파 시계반상 풍명로에는 조연한 자해의 점복술 (占卜術) 가가 등장해서 눈길을 모았는데.

조끼차림 검붉인「싱글」차림으로 돗자리위에 점잖게 앉아 보다 알한 대학의 기상을 수행할것이 되는 시점에 있다고 하겠다.

이 상 준
<영어과부교수>

지리적사정염려돼

본교설치와 함께 종합대학에로의 지향이라는 미래적 비전제시는 우선 그시기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본교설치를 통한 종합, 대학규모의 확대라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분교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것같다.

즉, 서울시내에 종원이나 증과가 한전 불가능한 현실은지방으로 그시야를 돌릴수밖에없다는 결론을 가져온다. 서울인구집중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취해지고 있는 이번안시책의 효율성, 타당성여부는 체임있는 당국에서도 꾸준히 검토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해나하면 나의 생각으로는설질적으로 이러한 정책이 서울인구억제책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지않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깊게 연급을 한 카알은 본교가 설치될 음인이라는 지역의 지리적 사정이 우려되기때문이다.

분교 설치를 통한 종합, 대학규모의 확대에는 전적으로 찬동을 하면서도 일지당은 정책에 전체 캠퍼스가 용인으로이전해야 된다는 사실이 섬사리 공정적으로는 생각되지 않기때문이다.

손 광 춘
<정외과 · 3>

학생2분화없도록

종합대학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획기사중분교설치에 관한 전망과 문제점을 관심있게 읽고 어느정도 「분교설치」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고 있다는 생각은 했었다.

현 이문동캠퍼스의 포화상태는 이미 어려비 지적된 바 있거니와 종합대학—단. 외대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을 전제로 한다면 결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81년에나 실질적으로 응인분교에서 신입생을 받아들일수 있다는 점등을 고려 해볼때 당분간은 본교 (本校) 신입생들과 함께 강의를 받아야 하는 반쪽 「학생의 2분화」 현상이 초래될가 싶이 우려 된다. 더구나 강의실의 부족이나 일부학과 교수진의 부족현상등을 더해서 나갈 계획의 입안이 과제일것 같다. 학교의 현실 기사에 의하면 궁극적으로 분교의 위치에 본대학 캠퍼스가 이전될 것이라고 전하고있는데 그렇게 될경우 학내이든의 항방은 어떻게 조정될 것인가에 대하여 주목을 해야하고 최선책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 태 석
<영어과 · 4>

외단문축제평

작년보다 한달 가량 앞당겨진 제6회 외문축제는 예년과 비슷한 참여율을보이고 29일 종아제를 끝으로 엊새간의 막을내렸다.

외면적으로 「큰 무리없이 시작부터 기후때문에 공연장소를 옮겨야」 했던 이제는 많은 이들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지 못해전야제에 대한 세일한 실정이 있었다면 하는 느낌이다. 또한 예년처럼 학술행사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한 경향을 감안 하더라도 이번 축제기간의 학술행사는 백일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 (全無) 에 가까왔다는 점은 심각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

전야제의 입시버치 프로그램인 「미틀기의 년」에서 부터시작된 「음악쇱」은 「동네 연극」이라는 무명 (俗語) 과 함께 이번 축제행사를 오락·유흥 일변도화하는 전조 (前兆) 가 되지 않았나하는 걱정도 낳게한다. 카니발 당일의 「외국인 노래자랑」등의 프로그램도 「오락」이라는 선에서 벗어나 이해되어 접수없는 하나의 예에에 속한다.

연극반에서 무대에 올린 Work Shop공연도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으나 Work Shop공연이가지는 미숙성이 이상은 사실은 6월경 최말신청자가 194명이었다가 해당T O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만이 혜택을 받은 결과에 불 나타나고 있다고 보겠다.

이러한 서류구비상의 복잡성에 대해 학내의 관계자는 실제로 서류혜정은 은행측이 전담하고 있기때문에 학교측에서 이를 조정할 명권에 있지못하다며 그 고충을 토로했고 또 융자 신청 관계의 업무기관인 국민은행의 한 실무자도 「서류의 간소화는 미이상 계획한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6월경에 실시되는 최말조사도 현재의 공고나 게시만을 통한 방법보다 해당 학과생들의 실태에 대해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계획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출신학생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게 대다수 지방출신학생의 의견이다.

올 6월20일경에 융자혜택 공고가 붙고 서류수속문비기간을 일주일 정도 부여한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이런 점을 보완·시정하기 위해서는 방방기관(은행 등) 과 관계법의에 관련서류를 미리 파악하여 방학중 학수표를 우송할 법 이미 공지되는 서류명세서를 함께 우송하여 지방유학생들이 이에 미리 대비를 갖추도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서류수속절차의 복잡성이 융자혜택을 원하는 많은 학생들의 의욕을 중도에서 꺾어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인무 기자>

구심점 있는 행사 없어

진행된 경은한 축제였다」고 의견이 모아지는 이번 축제에 대해 지적되는 아쉬움은 대부분 그동안 축제를 거듭해오면서 늘거튼 되었던 것으로서 그런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라고본다.

시작부터 기후때문에 공연장소를 옮겨야 했던 이제는 아쉬움은 많은 이들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지 못해전야제에 대한 세일한 실정이 있었다면 하는 느낌이다. 또한 예년처럼 학술행사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한 경향을 감안 하더라도 이번 축제기간의 학술행사는 백일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 (全無) 에 가까왔다는 점은 심각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

전야제의 입시버치 프로그램인 「미틀기의 년」에서 부터시작된 「음악쇱」은 「동네 연극」이라는 무명 (俗語) 과 함께 이번 축제행사를 오락·유흥 일변도화하는 전조 (前兆) 가 되지 않았나하는 걱정도 낳게한다. 카니발 당일의 「외국인 노래자랑」등의 프로그램도 「오락」이라는 선에서 벗어나 이해되어 접수없는 하나의 예에에 속한다.

연극반에서 무대에 올린 Work Shop공연도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으나 Work Shop공연이가지는 미숙성이 노출되어 축제행사란 외미 할 중 다중요시했더라면더 나은공연이 되었을것이다.

이번 축제에서 「넥비 (白鬼) 로 공킵 것은 어떡생 축제인데 「록스티발」은 장소의 조건상 흠기, 통풍문제등을 제외하고는 알찬 느낌을 주었지만 그 외 몇행사는 학생들의 호응부족으로 거의 기대한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이번 축제가 주최측의 상당기간 노력 수고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만큼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참여자에게 있겠으나 주최측이 나누어 질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심점이있는 축제, 단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도 시의 (時宜) 에 맞는 행사라는 느낌이든제 대학인에게 제시되어야한다. 해마다 같은 프로그램 같은 내용의 반복은 장기적 비전과 이미디어의 부재에 기인한다. 한마디로 올해의 축제는 「반성의 여지를 많이 남겨둘 결이 났다고 할수 있겠다.

왕년 낙수

잘 놀때는 언제고

○…올림픽이라, 축제다해서 연일 술에 모르게 휴강이 빈번한 가운데 축제가 종지부를 찍자마자 일, 삼, 오, 칠, 구의 행운 (?) 이 춘심즈를 「반가이」 맞고 있어 캠퍼스는 이제가지라는 말리 완전한 고요 속으로 들려가. 일부 춘심즈들은 파장하축제도 포기하고 서둘러 귀향 해이, 사, 육, 팔, 장만 「짚으면」 역사적인 연휴라고 기염.

거기에다 중간고사는 차질없이 오는 8일부터 실시됨다고 발표는 되었으나 벼슬게 얼마 되어야 시험될게 있지라는 아아가가 근거있는 중론이고 보면 놀아도 너무 화곤하게 놀았다는 반성론이 심각하게 대두될 판. 『잘놀때는 언제고…』

○…2학기 들어 아침 첫시간의 강의가 9시로 앞당겨져 아침잠을 설치는 춘심즈들이, 계속됨 난기류로 고투 (苦鬪) 를 거듭하고 있다는데.

전철통학자의 경우 귀경여 통행제단 종축공사로 우회통행을 강요함하는 바람에 더욱 지체되는가 하면 전심반보 곁에 한많은 「이문로」에 이르면 이번엔 불은 신호등이 원망스럽게 커져있기 일수라나?

하여, 일전연휴기경역의 게단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중에서 춘심즈로 추정되는 일단의 무리가 거절도 않은 채 무너진 올타리목으로 「뛰는 」 용맹을 보이는 사태까지 있었다는 데…글쎄 그래도 괜찮아?

○…얼마전 학생회관앞 잔디밭에서 현임서즈 바람의 모 춘심즈 못사람의 시선을 집중시켜 화제.

남녀춘심즈 불비는 자리에 잔디밭에서 벌어레는 「스프링—클래」에 현임서즈바람으로 목하 세면과 사워를 즐기는 모습.

아에 잔디를 뒹굴뒷기를 작심했는지, 아니면 박내분위기가 어수선하자 선점성 자기과시욕이 불같이 살아나 물로 식히려 했는지 저 어쨌든 반응도 · 유반부동인 기이한 작태.

○…오랜 갑자기 고대 곳곳에서 카드놀이에심취한 춘심즈가보 해 놀이났는데.

이번되어 「은밀한」곳에서만 행해지던 소위 「마이티」놀이가 「개 타고 밖으로 밖으로 진출해 캠퍼스잔디밭은 물론 주위의 다방, 제과점까지 진출하는 기세를 보이고 있다고.

더우기 며칠전 학교앞 제과점에서 「쉬징마이티」로 인한 모대생들과의 못하지않은 불상사까지 있었다고 하니, 「카드」속 (裏) 제위, 자중합시다그려. 때가 어느 덧 이문동 크로니클

외단문축제평

구심점 있는 행사 없어

진행된 경은한 축제였다」고 의견이 모아지는 이번 축제에 대해 지적되는 아쉬움은 대부분 그동안 축제를 거듭해오면서 늘거튼 되었던 것으로서 그런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라고본다.

시작부터 기후때문에 공연장소를 옮겨야 했던 이제는 아쉬움은 많은 이들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지 못해전야제에 대한 세일한 실정이 있었다면 하는 느낌이다. 또한 예년처럼 학술행사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한 경향을 감안 하더라도 이번 축제기간의 학술행사는 백일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 (全無) 에 가까왔다는 점은 심각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

전야제의 입시버치 프로그램인 「미틀기의 년」에서 부터시작된 「음악쇱」은 「동네 연극」이라는 무명 (俗語) 과 함께 이번 축제행사를 오락·유흥 일변도화하는 전조 (前兆) 가 되지 않았나하는 걱정도 낳게한다. 카니발 당일의 「외국인 노래자랑」등의 프로그램도 「오락」이라는 선에서 벗어나 이해되어 접수없는 하나의 예에에 속한다.

연극반에서 무대에 올린 Work Shop공연도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으나 Work Shop공연이가지는 미숙성이 노출되어 축제행사란 외미 할 중 다중요시했더라면더 나은공연이 되었을것이다.

이번 축제에서 「넥비 (白鬼) 로 공킵 것은 어떡생 축제인데 「록스티발」은 장소의 조건상 흠기, 통풍문제등을 제외하고는 알찬 느낌을 주었지만 그 외 몇행사는 학생들의 호응부족으로 거의 기대한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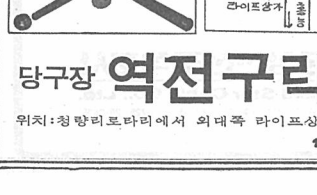
이번 축제가 주최측의 상당기간 노력 수고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만큼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참여자에게 있겠으나 주최측이 나누어 질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심점이있는 축제, 단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도 시의 (時宜) 에 맞는 행사라는 느낌이든제 대학인에게 제시되어야한다. 해마다 같은 프로그램 같은 내용의 반복은 장기적 비전과 이미디어의 부재에 기인한다. 한마디로 올해의 축제는 「반성의 여지를 많이 남겨둘 결이 났다고 할수 있겠다.

外大에게 희소식!

국내 당구업계에서 최신의 시설을 자랑하는 저희 역전구락부에서는 대학생팬을 많이 확보하여 지성적인 분위기를 조성코져 현행 당구요금에서 30%를 할인하는 파격적인 써비스를 단행코져 합니다. 많이 이용하셔서 명실공히 외대인의 구락부로 성장시켜 주십시요.

※단 카운타에 학생증 제시자에 한함
◎초보자에서 고점자에 이르기까지 개인지도 가능
◎회타, 에어콘 완비
◎매월 2,4차 월요일 정기휴일



당구장 역전구락부
위치:청량리로타리에서 외대쪽 라이프상가 맞은편
☎ ㉿1888

軍 행정병 모집
종로1가 ●만17~25세 ●소정의육부행정보조요원 ●보통학교졸업이상 ●본인당사 ●서울시고등학교졸업이상 ●병역필 ●서울시중앙동 ●☎7776
官 유니타자학원
●수학능력우대 ●이수기간6개월 ●입학자 ●주간자 ●야간자 ●자격자 ●자격자도 ●이수기간6개월 ●입학자 ●주간자 ●야간자 ●자격자도 ●시설—중앙최신장비 ●T·C·M타자기 보유 ●기숙사 ●기숙사

大學 교양 打字

就職, TOFEL, 留學, 大學院, GRE, GMAT 등 각종의 英語試驗에 대비하기 위하여 英語全般에 걸쳐 골고루 취급된 大學生 등을 위한 英語基本書!

高級 英語綜合研究(上)
文洋秀(弘大)·鄭正浩(中大) 敎授 共編著
크라운版 五九〇面 配布價 四·五〇〇원

高級 英語綜合研究(下)
文洋秀(弘大)·鄭正浩(中大) 敎授 共編著
크라운版 五五〇面 配布價 四·五〇〇원

〈主要內容〉
◇英文法 및 語彙研究
◇讀解力 및 英文解釋研究
◇英作文 및 英語會話研究
◇TOFEL, GRE, GMAT 研究
◇企業体, 考試, 大學院問題研究

貿易經營社
(간) 8997~8, (간) 2277

젊은 지성인들께 드리는 三潮社의 베스트셀러

三潮社 서울시 종로구 중원동 128-20 ☎ 22-3655

●폭발적인 인기속에 重版을 거듭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갈 수 없는 나라
●모든 베스트 셀러 조사 매체들이 한결같이 이소설을 1위로 선정했읍니다.
냄새 아프다 대번 회려가 이번 전체교사가 결망적인 한한 것은서 있는 우리 부제의 小說에서 다.
가장 곡절 많고 파란 많은 대륙의 역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소설은 대륙의 역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타락이나 고사한 것도 있다.
上下72회째 / 값 각1,700원

광대의 꿈
洪 盛 原/長篇小說
上下792面 / 값 각1,500원
●1년간의 집요한 취재 끝에 完成한, 現代産業社会의 비정한 現場을 파헤친小說.
出世, 權力, 富貴를 쫓는 現代 젊은이들의 虛偽와 野望의 늪을 헷진 作家 洪盛의 경쾌하고 힘찬 장편文學!

呉尚源愚話
오상원지음 / 백인수그림
204面 / 값1,000원
●政治와 社会에 대한 文學的 알레고리
「푸리깊은 나무」에 3년간 연재되어 폭발적 관심을 불러 일으킨 오상원·우화의 기념비 발간.

이혼의계절
존 처버 著/安正孝訳
296面 / 값1,700원
●TIME誌가 커버 스토리로 소개한 最大의 話題作品
"79년 퓰리처賞수상!"
뉴욕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에 사는 匿名의 중산층과 그들이 처사 나가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한 겨울 밤에 펼쳐나가 그것의 가장 훌륭한 공동체라고 보여주는 리처드 존슨 작품.

바다여, 바다여
아이리스 머도크著/安正孝訳
크라운版518面 / 값3,000원
●뉴욕 타임즈誌가 금세기 최고의 걸작이라고 격찬!! "79년 英国 부커賞수상!"
불신년만에 만난 첫사랑의 恋人을 찾아 떠나 바다로는 사랑의 불꽃과 죽음과 生의 神話가 피안 바닷가의 조그만 집에서 벌어지고, 人生의 비 밀들이 서서히 벗겨지는 가장 현대적인 小說!

●오늘에 쓰여진 가장 완벽한 사랑의 바이블 (聖典)!!
完全한 사랑
●톨스토이 사랑에는 들끓는 격정적인 것이 없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개의 사랑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성적인 二分法은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그것은 톨스토이 사랑의 본질이다. 톨스토이 사랑은 그것은 인간의 사랑이다. 그것은 인간의 사랑이다. 그것은 인간의 사랑이다.

'80년대 연극 지표 설정을 위한 지상 심포지움

연극의 대중화는 가능한가

사회 : 70년대 연극을 진통속에서 맞보한 상태라면 80년대는 우리가 겪은 그 진통의 원인을 파악, 해결에서 비약해야 할 시기다 생각됩니다. 우선 70년대의 주도리전 특징이란 연극의 대중화문제를 들 수 있겠는데.

김의 : 연극의 대중화문제는 신연극의 효시인 이인직의 「은세계」이후 계속는 탄되어온 것인데 1960년 극단 「산하」의 창단이후 많은 동인그룹이 생겨오로해서 본격화되었지요. 대중화에 있어서의 논점은 대중화가 곧 저질화를 의미하는가에대한 어부, 즉 저질화없는 대중화는 불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반 : 과거 희랍시대 벌피의 아폴로 신전 극장은 8,000의 재석을 가지고 있어 인근 폴리스시민이 모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공연했던 연극이 저질은아니었습니다. 그렇게볼때 오늘날 우리연극이 많은 관객을 끌수하고 있는 사실이 연극의저질화를 의미한다면 그러한 「대중화」에는반대합니다.

이호 : 저도 비슷한 입장인데저질화를수반한 대중화와 반드시 필요한기에대해선 회의적입니다. 70년대후반부터 H극장이나 주선생을 등내놔어 많은 저질화 상업위주의 연극이 행해지기도 했는데, 관객의 「연극 감보기운동」등의 이해력한 상은 우리가 자초한것이 아닌가 합니다.

추송 : 그것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데서 오는 결과일것입니다. 연극은 관객이 선택하는 것이며 특히 연극의 전문화와 아마튜어적 실험극은 구별되어야하겠죠.

사회 : 저질화수반한 대중화는 연설적표현일뿐 우리모두가 저질화는 바라지않습니다. 다만 연극과 관객은 분리시켜 생각할수없으므로 관객동원문제가 발전되어 대중화, 상업화를 운위하게되는 것이지요.

아울러 대중화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연극관객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할 필요가 있겠지요.

김의 : 아까의 문제제기가 일방적인것이 되었는데, 그러면 제 아무도 저질화를 원하지않으며 저질화련상을 빚었는가? 그것은 련설적상황을 내재할수 없는데서 오는 문제인니다.

청중A : 저질화의 개념설정이 모호한것 같은데.

이반 : 구분을 하자면 실제라비보다 홍보비용을 크게들여 연극의 내용에 불성실했을때 연극이 저질화될수있는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추송 : 대개 수지타산을앞추기위해 관객모집에만 신경을 쓰는경우가 그러한데 이는 전율극장등 연극이 실제라비보다 홍보비용을 크게들여 연극의 내용에 불성실했을때 연극이 저질화될수있는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추송 : 대개 수지타산을앞추기위해 관객모집에만 신경을 쓰는경우가 그러한데 이는 전율극장등 연극이 실제라비보다 홍보비용을 크게들여 연극의 내용에 불성실했을때 연극이 저질화될수있는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의 : 혹자는 한국연극을 「창작의 빈곤」 「기술의 빈곤」이라 심지 말하지만 그 이유는 결코 생각되지 않는다는 결못된 생각에서 입니다. 연극에 있어는 자세가 타성에 젖어 일어나는 현상인것같아요. 연극인이 연극만으로 생활할수있는 연극의 전문화가 실현되어야하겠죠.

◇장기공연을 위한 소극장의 부족도 연극의 저질화를 초래하는커다란 원인중의 하나이다.

이반 : 연극인만으로 힘들어요. 한국연극은 전통미학이없이 셋방살이 연극을하는데 관객마저 저질화되었다면 곤란하지요. 좋은 연극을 위해선 관객수준의 향상도 문제가 되겠지요.

김의 : 혹자는 한국연극을 「창작의 빈곤」 「기술의 빈곤」이라 심지 말하지만 그 이유는 결코 생각되지 않는다는 결못된 생각에서 입니다. 연극에 있어는 자세가 타성에 젖어 일어나는 현상인것같아요. 연극인이 연극만으로 생활할수있는 연극의 전문화가 실현되어야하겠죠.

이날 토의회 「연극의 대중화 문제」는 전환기에 서있는 한국연극의 현실에서는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문제였고 기상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일본 극단에서 표방하고 있는 연극의 전문화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차 논의의 정점이 되고있는 것은 한국연극계가 안고있는 취약성 때문이라 하겠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프로페셔널리즘과 아마튜어리즘의 구분이 명확하여 고도의 전문극이 형성되고 있다. 이날 토의에서도 대중화 문제가 전문화속으로 결부되어지긴 했으나 올바가는 과정상의 문제가 좀더 신중히 검토되었더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아마튜어극과 전문극을 전위적 순수극과 상업극으로 대별하긴 어려운 일이나 지극히 당연한 대중화과정에 있어서도 앞자의 입장은 갈을 수가 있는 것이다. 더우기 아직 미분화(未分化) 상태에 있는 한국연극계의 현실, 현실성을 못되어난 거리 미부분의 답등 우리가 안고있는 폭

직업적 대학생론

이 기 우

직업이란 것은 개인이 사회집서에 참여하여 사회에대한 이상을 신현하고 생계유지를 하기위한 수단이다.

사회혁인 소명 (召命) 이란 표여서 직업에 대한 의미는 작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직업인이 갖는 속성은 그 본래의 의미와는 달리 보다 현실적이고 속되며 그다지 화려하거나 깨끗하지만은 않다. 그 속성이란 것은 거대한 조직속에서 개인의 한계를 너무 빨리 깨달게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일찍 세련되어지며 세상일에 게산이 빠른, 그런 것이다. 주체는 상심되어지고 개성이 없으며 어제와 오늘과 그리고 또 내일이 별로 다름나 없는 버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흔히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직업인의 속성이다.

우리들 대학생에게 있어서 대학생활이 갖는 뜻은 무엇인가.

대학생 누구에게나 대학생활 4년은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요즘의 대학생은—며 정확히는 요즘의 의대생은 학과나 전공에 대한 정열보다는 마치 대학생이란 직업을 가진 듯 하다.

2차적 선택에서 오는 입학덕스가 정열을 앗아가버린 학과분야인이 전부인양 전공과 학과에 대한 정열은 줄어들대로 줄어들었다. 어제서 무엇에든 한 곳에 미치지 못하는가 무기력하고 일체감이 없으며 적극적인 참여의식보다는 개인적인 계산이 먼저 앞선다.

자기의 소속감조차도 희미하는듯 하다. 학사공만이 목표인가. 우리는 의식과 주관과 개성이 드러나길 부고려해 하게 만드는 분위기도 문제이다.

이밖듯 겉에 나타난 현상보다도 우리가 정말 더 경계해야할 것은 그 속에 가려져있는 의식구조이다. 도대체 의대생의 의식구조란 어떤것인가. 자의식 (自意識) 이 표출되길 거부하고, 깊은 얘기를 꺼낼줄모르며, 우리를 둘러싼 사회와 대학의 범위에대해 무관심한 모습은 이 사회와 대학이 만든 것인가. 관심을 가질 필요조차 없어진 것인가.

자주 사그러만 들려하고 내세우길 꺼리고 그저 쉽게 쉽게만 살려하는 모습들. 요즘의 셀러리맨들 같다. 모두가 닮아져버렸다.

한편 대학생활은 사회진출을 위한 준비단계이다.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또 자기의 운명에 맞서보려는 또 독립하여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단계이다.

그런 까닭에 사회와는달리 대학은 참외와 진리와 순수함과 정의와, 그리고정심함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목표를 향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는가. 더구나 이제 가을이 조금더 깊으면 캠퍼스 곳곳에 낙타이를 띈 대학생신사 정장 (正裝) 차림을 한 우리의 여대생들이 대학생이란 직업의식을 한층 과시할것이다. 복장에 있어서 자유로울 복필마저 포기하고싶은 강각도 없어버린 채 그저 값으려고만 하는 그 생각이 문제이다. 대학생활을 쉽게만 보내려하는 그 세련된 모습들이 너무도럽거워 보인다.

대학마다 다는 사실을 부슨 취미인 양 어기는 일부 여대생들의 모습은 심한 거부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그비들에게 옷을 즐려 공부하는 모습들이 생활을 위한 방편으로만 여겨질뿐이다. 대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다.

> 선택받은 소수로서의 수혜(受惠)의식은 곧, 적어도 받은 만큼은 다시 돌려 갚아야한다는 상식적인 평형(平衡)의식으로 나타나야 한다.

해고당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셀러리맨처럼 등록기간만 되면 위기의식조차 느껴야하는 현실에선 의식이 기절없이 하는 얘기가 차라리 사치일지도모른다.

선택받은 소수로서의 수혜(受惠) 의식은 곧 적어도 받은 만큼은 다시 돌려 갚아야 한다는 상식적인 평형 (平衡) 의식으로나 나타나야 한다.

<웰어과 · 2>

문화단신

▲극단 「성좌」 「어린왕자」 공연

성 · 퍼터메리 원작의 「어린왕자」가 H · 랭그스트라세 이창구 연연으로 명동 연간토에술극장에서 막을오른다.

극단 「성좌」 · 제19회 정기공연으로 마련된 이번공연은 오는 10월20일 까지 매일 오후 4시, 7시에 있으며 연출은 조민, 기획 김대식 그의 캐스트로는 김을동, 정재홍의 다수출연.

▲극단 「무리극장」에서 「푸무」 공연

박종식연역, 고금석연출로 공연되는 「푸무」는 F · 베데킨트의작품 「지렁」과 「관도라의 상자」를 합본한것으로 트라마푸르기 형식으로 공연된다. 「트라마푸르기」란 독일의 독특한 연출양식으로 작가와 작품, 극이론에 정통한사람이 연출자와함께 연극을 만드는 가는 도다른 연출가를 지칭하는데 이번 공연에서는 김창우가 트라마푸르기를맡았다. 공연은 세종문화회관 별관에서있으며 기간은 10월11일~15일 하오 3시, 7시.

▲「누가 버지니아울프를두려워 하는가」

극단 「조명극장」에서는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에드워드 · 올비작 「누가 버지니아~」를 유홍렬역 이민재연출로 공연한다.

캐스트로는 권미림, 임정일외 2人이 출연하며 장소는 공간사랑.

—알 림—

이번호에 나가는 사랑마루의 제목이 바뀌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심선언』로 원고를 모집했으나 사정에 의해 『골동품과양심』으로 제목을 바꾸어 계재하게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 성원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극의 대중화는 곧 전문화를 의미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대중화, 저질화 아니길 바라

김의 : 그러면 이번 심포지움의 주제인 연극의 대중화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 지난 9월26일 본대학 연수원강당에서 열렸던 ○○연극의 내용으로 80년대 연극발전을 위한 연극 ○○의 대중화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론되○○었다. 토론에는 김의경 (국단「현대극장」대○○표), 이반 (극작가), 이호재 (연극비평), ○○○ ○○임영웅(연출가, KBS방송위원), 추송웅 (연○○극배우) 등이 참석했으며 사회진행은 임영웅○○씨가 맡았다. <편집자주>○○○

사회 : 평론가의 비상심적 행동은 대상에 대한 애착부재의 소치라 봅니다. 결국 연극의 대중화는 연극의 전문화와 직접적인것이라 할 수 있겠읍니다.

이날 토의회 「연극의 대중화 문제」는 전환기에 서있는 한국연극의 현실에서는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문제였고 기상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일본 극단에서 표방하고 있는 연극의 전문화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차 논의의 정점이 되고있는 것은 한국연극계가 안고있는 취약성 때문이라 하겠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프로페셔널리즘과 아마튜어리즘의 구분이 명확하여 고도의 전문극이 형성되고 있다. 이날 토의에서도 대중화 문제가 전문화속으로 결부되어지긴 했으나 올바가는 과정상의 문제가 좀더 신중히 검토되었더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아마튜어극과 전문극을 전위적 순수극과 상업극으로 대별하긴 어려운 일이나 지극히 당연한 대중화과정에 있어서도 앞자의 입장은 갈을 수가 있는 것이다. 더우기 아직 미분화(未分化) 상태에 있는 한국연극계의 현실, 현실성을 못되어난 거리 미부분의 답등 우리가 안고있는 폭

사회 : 평론가의 비상심적 행동은 대상에 대한 애착부재의 소치라 봅니다. 결국 연극의 대중화는 연극의 전문화와 직접적인것이라 할 수 있겠읍니다.

이호 : 관객의 피곡, 연극에 대한 교육상의 문제도 무시못할 요소중 하나죠.

청중C : 대중화는 관객의 확대뿐만 아니라 연극인의 확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추송 : 평론가의 상심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반 : 평론을 평포로 생각한다면 80년대 연극예술은 그리 밝지 못한듯 싶어요. 연기미학을 정립해서 평론에 대비해야 할것이라 믿읍니다.

수성을 차근차근 모색해「대중화를 위한 바른 방향」의 모색에 좀더 많은 논의와 의견이 제시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신선희기자>

여성해방 —그 영원한 딜렘마

조 용 범

우리 사회의 병폐(病弊)가 연일 매스콤에 의해 알려질 때 여자가 개입되지 않은 사건은 드문 것 같다. 국정과의수입, 부동산 투기, 수억대의 여자도박사건 보석밀수사건, 그 무성한 게와 파렴의 바람, 끝없이 나열할 수 있는 저간의 어비상황은 우리나라도 여성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활약이 지대 (至大) 하니「여성해방선진국」이림직인가?

오늘날 산업사회의 격변속에서 여성노동력의 필요성은 더욱 가중되어 전자제품 조립에서부터 트랜지스턴, 심지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기계조작이나 핵물리 과학에까지 그들의 힘이 미쳐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과거 부부관계에서 재산권 부분에 집중됨에서, 그리고 그 부 (富) 를 그 남성의 아들들에게 상속시키기 위해 생겨난 것이라고 했다. 부부간의 애정윤리를 파소평가한 것 같기도하고 너무 지독한 경제적 사고방식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신랄한 느낌을 준다.

이런 경제적 관념하의 일부일처제속에 여성지위의 향상, 특히 경제적 지위의 향상은 필욕할만 하다. 아직까지 피지배자적인 여성 지위의 어둡고 깊고 깊었던 관념의 동굴에서 완전히 빠져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떤의 빛은 이미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 되어야 할 것은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문제다.

여성의 권리적 약점으로는 결코 남성우위론자들이 자주 말하는 신체적 유월지가 못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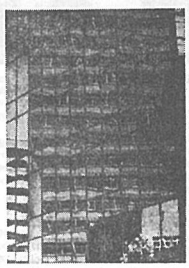
간디의여성론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여성의 직관은 오만한 남성의 지식을 능가한다. 여성의 직관에서나온 그 세밀성과 조심성은 남성의 허황된 이재(理財)를 능가할 수가 있다. 여성만이 가질수 있는 이런 속성으로써 사회에 참여함때 여성해방론도 우리사회의 관점에서 조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여자가 사회에 나설때그들의 대출학력이마든지 남편의 지위가 자신의 능력보다 우선하는 이른바「체면문화」내지는 나르시즘에 쉽게 빠져버림을 볼수있다. 소위「체면문화」가 파생시킨 역기능적인 여성활동으로 인해 침작 나타나 가정이 필요로 하는 바람직한 여성 활동이사장(死藏)됨다는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결론적으로 여성 해방이 우리 사회의 관점에서 그 위기를 찾기 위해서는 진정한 여성해방은 시류에 영합하여 뇌동 (雷動) 하는 Lonformist(군중조화론) 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본연적인 생을 찾을 수 있는 Individualist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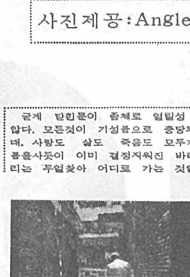
<이린어과 · 4>

지상사진전



조명마저 알맞지는 아예 배제되었고 수용소(양)들을 위한 상자 앞을 비 배제하는 것같다. 이 모습은 특

사진제공 : Angles



「휘로 걷는 아이」, 「거꾸로서기 여성빈」, 물구나무섰을때의 세상은 노오랗고 타리기멜이 사이로 보았던것은 세상의 만곡, 솟은 하늘로 타리를 벌고, 그때도세상은 살만한 곳이댄가.

신문보도 아쉬움 느껴

김 정 기

골동품상 금방사건이 사건발생 꼭 1백일만에 범인이 잡히고 중발한 세사람이 모두 시체로 발견됨으로써 영구미제사건으로끝날 번했던 희대의 납치살인사건의 전모가 세상에 드러났다.

매스콤은 저마다 이 사건을 연일 대서특필로 보도하고있다. 이해할만하다. 자기집 안방에서 세사람을 차례로 죽이고, 시체를 집안마당에 암장한 범인의대담성과 잔인성, 큰걸긴 수사금에 꼭 1백일만에 개가를 올려 우연성마저 가미된 경찰 수사의 화제성과까지 억울하게 생명을앗긴 은전기사. 그도 범인이 작인 세사람중의<한사람>이 아닌가? 그도 금방부부가 한에기의 여소녀 (孤兩가) 등이 매스콤의 큰 조명을 받아 보도됨은 당연할 것이다.

또 이에 지나서 이 사건을 추리소설화한 소설 「금방 남사사건」을 TV드라마로로 만들어 「잔혹의 100일」로 극화했다고 해서 나무라고싶지가 않다.

그러데 금방사건에기의흥수속에서 한가지 아쉬운점이 있다. 사건발생날 주인

골동품과양심

상랑마루

다음제목 : 만추 (晩秋)
매 수 : 200자3매
마 감 : 10월20일
▲이달의필진
김정기 (홍보학과) 조교수
박순환 (영어과) 교수

골동품상 살해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 타디오와 신문을 떠들썩하게 했다. 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범죄는 예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사람을 셋씩이나 죽여놓고 이제와서 자신을 가장 잔인하게 죽여달라는 범인의 말은 그자의 양심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고자 함인가? 부모의 죽음도 제 느끼지 못하는 골동품상 말의 천진스럽 목소리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양심은 결코 범죄에서만 찾을수 있는건 아니다. 사람에겐 각자의 직분이 있다. 그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각자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이라 하겠다.

심심가프로서, 교육자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또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양심을 지니겨.

<마인어과 · 2>

유 승 훈

비참한 양심선언 말아야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가? 의문이다. 항상 우리는 양심과 더불어 사고하고 행동하며 오늘을 살아야 한다. 그리하여 자신을 죽여 말하는 법인의 외침처럼 비참한 양심선언만은 하지 말아야겠다. 가슴이야. 하늘은 마냥 푸르기만하다. 푸른 하늘처같이 청명한 양심을 지니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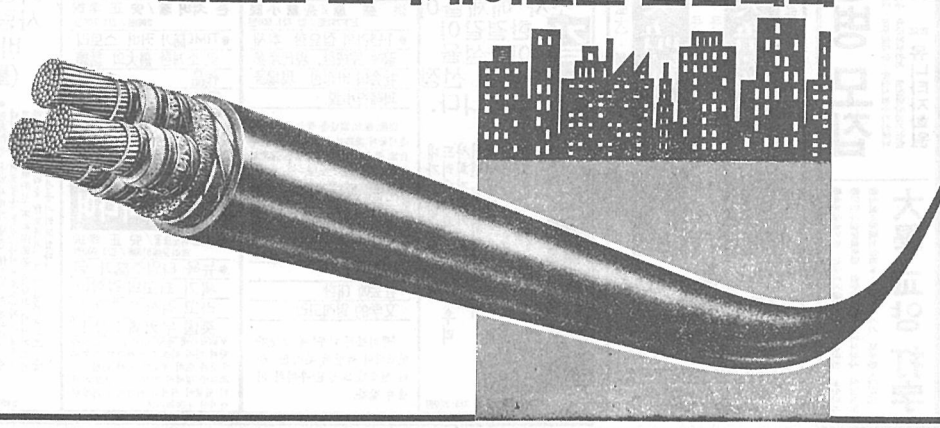
<마인어과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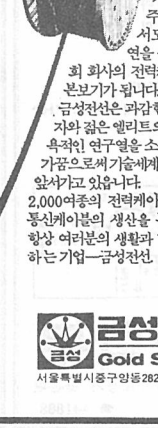
여성해방, 삶의 가치 추구해야

에서 소외되던 여성의 경제력지위를 생각건대 현대사회의 가부장 제도하에서 여성이 누릴수 있는 경제력 지위는 여명 새로운 모발 내지는 관념의 변혁이 이루어 졌다는 사실로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모오단은 그의 「가족진화사」에서 일부일처제는 부풀어 오른 부 (富) 가 남성의 손전이라든가 사회체제나 교육의 문제, 사회력을의 문제를 거론하고 싶지않다. 인생 전반에 관한 여성의 비 (非) 관련력 자세가 문제이다. 순간 순간마다 자신을 의식하고 자신을 외부세계에 투영해보고 또 초월해보고 살아 간다는 것이 본연적자세라고 정의한다면 대다수의 여성들이 그 자기를 찾기 위해서는 진정한 여성해방은 시류에 영합하여 뇌동 (雷動) 하는 Lonformist(군중조화론) 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본연적인 생을 찾을 수 있는 Individualist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린어과 · 4>

지하로 들어가는 66,000V 초고압 전력케이블도 만듭니다





전기안전을 위해 도심지에서는 고압선이 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고압선을 땅속에 묻기 위해서는 전기 절연문제등 기술적 어려움이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지하로 고압전기를 안전하게 보내주는 금성전선의 CV케이블, 그중에서도 66,000V라는 초고압 전기의 절연을 성공시킨 초고압 CV케이블은 저희 회사의 전력케이블 기술수준을 말해주는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전력케이블 분야의 첨단기술—금성전선은 과감한 투자와 젊은 엘리트의 의욕적인 연구열을 소중히 가꿈으로써 기술세계에서 앞서가고 있읍니다. 2,000여종의 전력케이블과 통신케이블의 생산을 통해 항상 여러분의 생활과 함께하는 기업—금성전선

금성전선주식회사
Gold Star Cable Co., Ltd.
서울특별시중구양동282 전화(22)3151~5, (28)0725, (28)0836